

2024년 아동청소년성교육 방향성 재고를 위한 지역네트워크 포럼

2024. 11. 22. (금) 15:00 ~ 17:00
부평아트센터 2층 호박홀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2024년 아동·청소년 성교육 방향성 재고를 위한 지역네트워크 포럼

- 일시: 2024년 11월 22일(금) 15:00
- 장소: 부평아트센터 2층 호박홀

시간	구분	
14:50-15:00	등록	접수 및 자리 안내
15:00-15:20	개회	내빈소개 및 인사말 격려사 및 축사
15:20-15:40	기조 발제	청소년 성의식을 통해 바라본 부평구청소녀성문화센터 성교육의 방향성 모색 (부평구청소녀성문화센터 이정호 센터장)
15:40-16:30	발제1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유형과 사례를 통한 성교육의 필요성 (인천북부해바라기센터 이홍이 부소장)
	발제2	아동·청소년 디지털성폭력피해 현황과 향후 지원 방향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류혜진 팀장)
	발제3	놀이와 폭력의 경계, 교육을 묻다 (부원중학교 교사 임영미)
	발제4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의 확대 필요성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윤진숙 소장)
	발제5	학교성교육의 한계와 교육적 회복으로서의 성인권교육 (산곡남중학교 교사 한선영)
16:30-16:50	질의 응답	질의 응답
16:50-17:00	폐회	사진촬영 및 폐회

Contents

청소년 성의식을 통해 바라본 부평구청소녀성문화센터
성교육의 방향성 모색
이정호 / 3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유형과 사례를 통한 성교육의 필요성
이홍이 / 11

아동·청소년 디지털성폭력 피해 현황과 향후 지원 방향
류혜진 / 15

놀이와 폭력의 경계, 교육을 묻다
임영미 / 19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의 확대 필요성
윤진숙 / 23

교육적 회복으로서의 성인권교육
한선영 / 27

부록

설문집계 결과표 / 32

설문조사지 양식 / 44

청소년 성의식을 통해 바라본 부평구청소녀성문화센터 성교육의 방향성 모색

이정호(부평구청소녀성문화센터 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부평구청소녀성문화센터장 이정호입니다

유난히 뜨겁고 무더웠던 여름이 무색할 만큼 11월의 차가운 공기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이 많이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성문화센터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응원을 위해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평구청소녀성문화센터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47조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입니다. 2011년 11월 23일 청소년수련관 성문화팀으로 시작하여 2013년 10월 1일 독립, 부평구문화재단에서 위탁운영 중입니다. 5명의 직원과 11명의 성교육활동가가 ‘청소년들의 성인권력을 바탕으로 성인지 감수성의 향상을 통해 건강한 성가치관 형성과 올바른 청소년 성문화 조성’을 비전으로 성교육을 지원하며 청소년들이 성 평등한 민주시민으로 육성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평구청소녀성문화센터는 청소년들의 성의식과 성문화의 실태를 설문 등을 통해 알아보고 앞으로의 성교육의 방향성을 재고하고 현실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기획과 콘텐츠 개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모든 준비과정과 설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후정초, 금마초, 서운초, 산곡남중, 부원중, 인천외고, 부개여고, 그리고 많은 학교 및 교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청소년 성태도 및 성의식 설문배경

급격한 사회변화와 디지털환경의 변화,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아동·청소년들의 인터넷접속과 미디어 활용이 증가됨에 따라 디지털성범죄에 노출되는 사례가 다수 많이 발생하고, 성에 왜곡된 가치관과 온라인 안에서의 또래문화를 형성하여 다양한 성문제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사회의 미투사건과 스쿨미투의 수많은 자성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청소년들의 불법촬영과 딥페이크 성범죄의 증가, 서울대 N번방 사건 등은 우리 사회의 성의식 수준을 보여주는 결과이고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부의 양성평등 정책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청소년들은 사회문화의 영향을 받아 다양한 성범죄에 가·피해자로 노출되고 있고 또한 연령이 낮아지고 집단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와 교육부는 이러한 청소년들의 현실을 반영한 성교육 매뉴얼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청소년들의 성의식과 성 태도를 알아보고 성적행동과 성경험관련 성문화를 이해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향후 효과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청소년성교육의 방향성을 찾고자 한다.

2. 설문대상

구분	설문 배포	문 항 수	설문결과 비율	회 수 율
초등학교 4기관	230부	30문항	부평구관내69% 타지역 32%	200부
중학교2 기관	265부	31문항	51%	209부
고등학교 2기관	220부	31문항	49%	200부
교사	120부	17문항	부평구관내	100부
총 부수	835부 배포			709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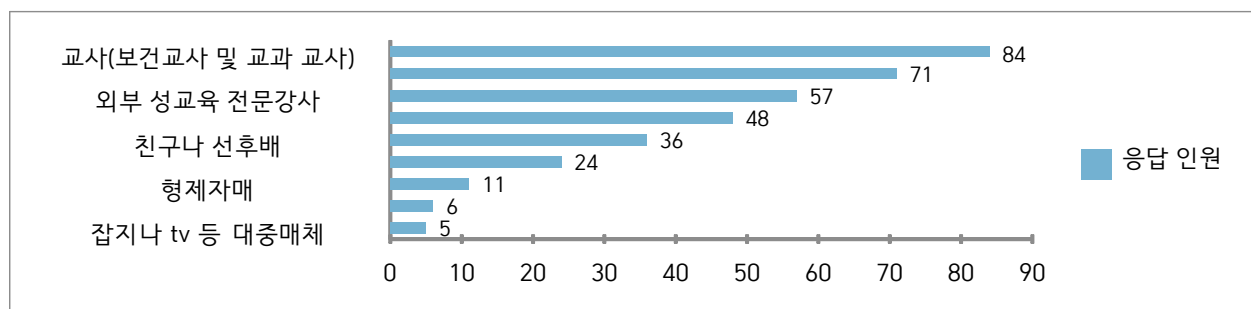
□ 성의식 조사결과

1. 초등학생들의 성태도와 성인식(5학년~6학년)

초등 고학년들 대상으로 자신의 외모에 대한 성의식을 알아보는 질문에 73%가 ‘연예인의 외모를 닮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미디어를 통해 비춰지는 연예인들을 보면서 건강한 신체보다는 몸과 얼굴에 대한 외모지상주의와 경쟁의 영역으로 몸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었으며 외모가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춘기 시기의 몸과 마음(정서적)의 변화에 대한 성적 호기심과 정보를 교사나 부모, 성교육 전문가, 그다음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되어 양육자 및 교사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고 ‘사이버공간에서 차별과 폭력적인 영상물’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번 문항의 ‘성적영상물(글, 영상, 사진 등)을 처음으로 접했던 시기’는 초등 4학년부터 6학년까지 4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초3학년은 6%, 입학하기 전부터 초등 2학년까지는 4%가 응답해 초등 전 학년 58%가 성적영상물을 처음 접하고 있다는 결과로 분석되었다.

「8번문항, 성에 대한 정보 지식 해결 응답률」



성적영상물(글, 영상, 사진 등)을 보았을 때 76%는 ‘기분이 좋지 않거나 더럽다’, ‘혐오감이 든다’, ‘죄책감을 갖는다’와 같은 부정적 정서경험에 대해 응답하였고, 6%의 학생들은 ‘또 보고 싶었다’, ‘자꾸 생각났다’고 보고되고 있다. 또한 사춘기 발달에 있는 청소년들은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고 ‘자신이 성폭력가해자가 될 수 있다’가 36%, ‘피해자가 될 수 있다’가 76% 응답률을 보여 성폭력의 다양한 상황에 대해 두렵고 막연한 불안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춘기를 경험하기 학교생활에서 사회적 관계를 맺는 초등 저학년에 시기부터 자신과 타인의 경계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경계존중(보호, 존중하는 경계와 실천적 행동)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성폭력은 피해자가 조심하면 예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친한 사이에서도 84%가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야한 말이나 성적 수치심이 드는 행동’과 ‘성적으로 외모에 대한 놀림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에 63%라고 응답하였으며, 32% 학생들은 ‘가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아동청소년들은 젠더화 된 사회 문화적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고 발달 시기에 맞는 건강한 성태도와 올바른 가치관형성을 위한 교육 개입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SNS를 통한 피해 노출 경험’은 응답학생의 15%이며 9%의 학생들은 ‘가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200명 설문조사 가운데 가·피해 경험율이 24%에 달하고 있어 사전 교육의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동·청소년의 특성과 성장 단계에 맞는 전문화된 성교육을 통해 성에 대한 건강한 가치관이 정

립되도록 지원하고 성인지적 관점의 교육·문화적 접근 기회 확대로 성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 중 고등학생들의 성태도와 성인식

중학교 2개 학교 265명, 고등학교 2개 학교 220명을 설문한 결과 중학교 209부 회수, 고등학생 200부 회수하였다. 설문지 응답 결과 중·고등학생이 ‘성에 대해 소중하고 자연스럽게 느낀다’고 응답한 학생이 37%로 나타났고, 55%는 ‘호기심이 생기고 불편하고 거북한 것’, ‘부끄럽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성적욕구에 대한 궁금증을 인터넷이나 매체를 통해 정보나 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경우 24%가 ‘의논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부모나 친구 및 선배와 고민을 의논한다’는 응답이 각각 18%였으며, ‘성교육 성상담 전문가’는 3%의 결과를 보여 성에 대한 고민 해결의 적절한 방법을 모른 채 인터넷에서 성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중 연애행이 있는 경우는 45%이며 사귀는 사이(연애)에서 스킨십 정도에 대해 손잡거나 뽀뽀, 포옹에 대해 허용적이며 키스, 가슴·성기 만짐, 성관계 등에 대해 18%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 중 성관계를 처음 한 시기는 중학교 때가 48%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때 29%, 초등 4~6학년 시기가 17% 순으로 나타나 성관계를 처음 경험하는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관계 시 피임 여부에 대한 질문에 72%가 ‘피임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피임을 한다’는 28%로 나타났으며, ‘피임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피임을 할 줄 몰라서’, 또는 ‘피임 도구를 구하기 어렵거나 성적 쾌감이 덜할 것 같아서’, 그리고 ‘임신할 것 같지 않아서’ 등의 답변이 있었다.

청소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성교육 주제로는 연애와 피임, 교제 성폭력, 의사소통, 성적자기결정권이 29%, 경계존중과 성인지감수성이 19%로 나타났으며 성폭력·성매매 이해와 대응 15%, 사춘기 이해 13%, 성적표현물 및 디지털 성범죄 이해와 대응 12%로 나타났다. 이는 생애 발달 과정에서의 관계 교육, 성적 정보나 지식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성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바른 피임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기타 의견에도 주목해야 할 이유이다.

또한 성적 표현물을 접한 청소년의 71%가 성에 대해 부정적인 사고와 왜곡된 성가치관을 갖게 되고 타인에 대해 성적대상화를 강화 하는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고등학생들의 성적 표현물을 처음 접한 시기에 대한 질문에 초등 고학년들의 응답 결과와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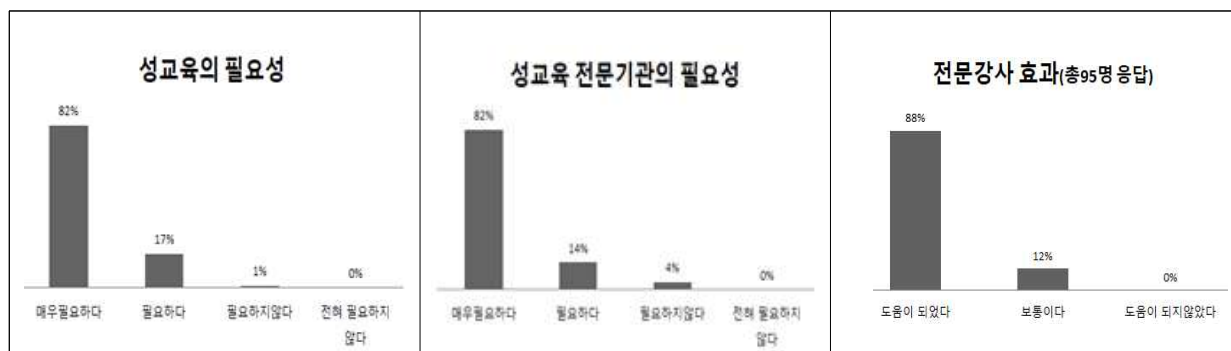
한 결과인 초5~6학년때가 35%였으며 중학교 때가 36%, 고등학교 때가 4%, 초등학교 입학 전~초4학년 때가 9%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볼 때 조기 성교육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성교육을 누구한테 받고 싶은지의 질문에 성교육 전문기관이 55%의 응답률을 보여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성교육을 받고 싶다는 욕구로 분석되며 청소년들의 성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이 드러난 결과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3. 교사 대상의 설문결과 분석

아동·청소년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성교육은 ‘매우 필요하다’가 97%로 나타났으나 전문적인 성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희망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예산의 문제’와 ‘전문 강사 섭외의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교사들은 청소년의 ‘왜곡된 성문화 습득’(27%), ‘또래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21%), ‘교제 성폭력’(17%), ‘차별과 혐오’(16%) 순으로 우리 사회의 심각한 성문제로 생각한다고 응답하였다.

청소년들에게 어떤 주제로 교육을 희망하는지에 대한 복수응답으로 ‘연애와 피임’(19%), ‘성적자기결정권’, ‘의사소통’(17%), ‘성적표현물 및 디지털 성범죄’(16%), ‘성인권, 차별과 혐오’, ‘외모지상주의’(14%), ‘경계존중’(13%), ‘성폭력·성매매 이해와 대응’(10%), ‘성인지감수성’(5%) 등의 순서로 분석되었으나 학교 현장에서 ‘성교육이 미흡하다’(78%)는 응답과 함께 ‘시간 부족’(21%) 및 ‘현실과 동떨어진 성교육’(24%), ‘평가중심의 형식적 교육’(3%)이 이유로 보고되고 있어 학교의 운영철학이 매우 중요하며 학교성교육에 대한 예산확대와 교육의 질을 높이는 정부와 교육부의 정책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성교육을 진행 후 효과성에 대한 질문에 교사들은 99%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나타난 청소년성교육의 방향성 제고

폭력예방교육을 포함한 성인권 기반 성교육으로 방향성을 달리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젠더기반 폭력과 청소년들의 성적 행동들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

회문화의 연속적인 현상으로 인식해야 한다. 청소년들을 미성숙한 존재의 금기와 금욕의 성이 아닌 감정과 친밀성에 기반한 성적 존재로서의 성인권 교육은 필요하며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정책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어 학교나 공공의 영역에서 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집단적 문화로서 성태도의 인식변화가 가능하고, 교차적인 우리 사회의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다. 신체발달 중심의 성교육에서 성인권 성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나 교육부가 청소년 성교육정책을 마련해야 하고 충분한 예산과 전 생애발달을 아우르는 교육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아동·청소년들의 연령대와 발달단계에 맞춘 생애적인 성교육을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측면에 대해 배우고 자기 몸에 대한 이해와 관계, 감정 등에 대한 성적 자기 기술과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내용이 구성되어야 한다.

자신의 건강과 복지 및 존엄성에 대한 인식 능력, 자신의 다양한 권리에 대한 이해와 보호 능력, 기술, 태도 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발달(생식, 사춘기, 생리학, 해부학), 대인관계(우정, 연애, 사랑, 결혼, 양육 등), 성에 대한 태도 및 자세(의사결정, 거절 능력 등), 성행동(스킨십, 성관계, 성적 반응 등), 성문화와 관련된 부분들(성폭력, 고정관념, 성과 미디어 등), 성 건강(피임 및 성인성 질환 등)에 대한 관계적 범위의 전체적인 섹슈얼리티에 대한 청소년들의 성교육이 지원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정부나 교육부 그리고 지자체의 청소년 성교육정책이 중요하게 반영되어야만 한다.

미래세대인 청소년이 성교육과 성폭력예방교육을 통합한 성인지교육 관점의 성평등이라는 공공의 가치와 성인지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청소년 정책으로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평등)교육과 상담, 문화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과 예산을 확대·강화할 때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미래와 모두가 안전한 사회가 될 것이다.

청소년 성교육 정책에 대한 제언

1. 국가 차원의 정책적 성교육 확대 및 지원 강화

청소년들이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자신의 존엄성을 인식하며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이해를 높여 존중에 기반한 사회적, 성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되려면 청소년 성교육의 국가 차원의 매뉴얼이 제시되어야 한다.

어릴 때부터 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가치관을 형성하고 성에 대한 왜곡과 고정관념을 예방하며 자기보호 능력을 향상하여 성적 건강 증진하고 차별과 불평등을 인식하고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제공해야 한다.

성교육을 의무화하고 성폭력 예방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법적 및 정책적 지원 확대 지원해야 한다.

교육부는 성교육 표준안을 마련하여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성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교육을 개발하고 학교와 청소년성문화센터 등에 보급하여 청소년들이 다양한 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성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고 학교 현장의 교사들에게 성교육 관련 연수를 제공해야 한다.

아동·청소년들의 연령대와 발달단계에 맞는 전 생애적인 성교육을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측면에 대해 배우고 자기 몸에 대한 이해와 관계, 감정 등에 대한 성적 자기 기술과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내용이 구성되어야 한다.

자신의 건강과 복지 및 존엄성에 대한 인식 능력, 자신의 다양한 권리에 대한 이해와 보호 능력, 기술, 태도 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발달(생식, 사춘기, 생리학, 해부학), 대인관계(우정, 연애, 사랑, 결혼, 양육 등), 성에 대한 태도 및 자세(의사결정, 거절 능력 등), 성행동(스킨십, 성관계, 성적 반응 등), 성문화와 관련된 부분들(성폭력, 고정관념, 성과 미디어 등), 성 건강(피임 및 성인성 질환 등)에 대한 관계적 범위의 전체적인 섹슈얼리티에 대한 청소년들의 성교육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2. 학교 차원의 성교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

전 생애발달을 포함한 커리큘럼의 성교육을 정규 교과 과정에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성인권교육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학교의 교육 변화가 요구된다.

이론적 주입식의 강당교육이 아닌 올바른 정보 제공과 건강한 성 가치관을 형성하는 성인권 의식 교육으로 사회적 책임감을 높일 수 있도록 체험활동 형식으로 강의, 토론, 역할극 등 다양한 교육 방법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학교가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학교 및 학생들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

3.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전문성 강화

교육대상과 발달단계에 따른 성교육 프로그램의 보완과 내실화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성교육 전문기관의 인지도를 높이고 청소년성문화센터가 노후화된 콘텐츠나 교구들을 중장기계획을 세워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의 활동 프로그램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들이 실제 상황에서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성 관련 문제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양육자와 교사들을 대

상으로 한 교육도 함께 진행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올바른 성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지역사회 안에서 성교육 전문기관으로서 학교와의 협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들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건강한 성문화를 만든다.

부평구청소녀성문화센터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양육자 및 학교들로부터 교육에 대한 요청을 받고 있다. 인천에 청소년성문화센터를 구에서 운영하는 곳은 부평구청소녀성문화센터가 유일하기 때문에 교육수요 및 상담 증가, 성사안 후의 조치적 대응에 대한 기관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모든 수요를 감당할 인력과 공간의 여건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럼에도 부평구청소녀성문화센터는 이번 설문조사결과와 포럼을 통해 앞으로 청소년과 교사들의 요구를 반영한 성교육의 방향성과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역량을 강화 하여 지역 안에서 부평구청소녀성문화센터가 지속가능한 성 평등 사회구현을 위한 시민들의 성의식 변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건강한 성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겠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유형과 사례를 통한 성교육의 필요성

이홍이(인천북부해바라기센터부소장)

안녕하세요. 인천북부해바라기센터 부소장 이홍이입니다.

오늘 부평구 청소년 성문화센터에서 주관하는 2024년 아동·청소년 성교육 방향성 재고를 위한 지역 네트워크 포럼에 참석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해바라기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피해 추이변화와 사례를 통해 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바라기센터는 365일 24시간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교제폭력 피해자에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전국 해바라기센터 40개소의 2023년 전체 이용 현황을 살펴본 바, 한 해 동안 23,419명, 하루 평균 약 64명의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가 서비스를 지원받았으며,

총 23,419명 중 성폭력 피해자는 16,221명으로 69.3%를 차지했습니다. 23,419명 중 19,142명(81.7%)이 여성 피해자이고, 3,965명(16.9%)이 남성 피해자였습니다.

19,142명의 여성 피해자 중, 0~12세 피해자는 4,443명으로 23.2%, 13세~18세는 4,459명으로 20.5%로 18세 미만 여성 피해자가 43.7%를 차지하였습니다.

2022년도 기준 18세 미만 여성 피해자가 42.7%를 차지한 것에 비해 1% 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3,965명의 남성 피해자 중, 0~12세 피해자는 2,811명으로 70.9%, 13세~18세는 527명으로 13.3%로 18세 미만 남성 피해자가 84.2%를 차지하였습니다.

2022년도 기준 18세 미만 남성 피해자는 84.9%를 차지하여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해바라기센터에서 8년 넘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바라기센터에 내방하는 성폭력 피해자를 살펴보면 주목할 만한 세 가지의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 성인 성폭력 피해자에 비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가해자가 성인 가해자에서 도래 아동·청소년 가해자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신체적인 접촉을 범죄로 하는 강간·강제추행보다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변화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성인 성폭력 피해자에 비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해바라기센터 연감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13세~18세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보다 0세~12세 아동 성폭력 피해자가 더 많아서 피해자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동은 제압이 쉽고 협박에 의해 부모님에게 말하기 어렵고, 신고가 쉽지 않은 점 그리고 피해가 발생하는 장소도 낯선 가해자를 만나는 외부공간이 아닌 유아·아동들이 주로 생활하고 있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내부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건들이 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할 만한 부분입니다.

피해자의 연령뿐만 아니라 가해자 또한 피해자 또래의 아동·청소년으로 가해자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 큰 변화입니다.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에게 평소 안면이 있던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이 아이스크림을 사 주겠다고 CCTV가 없는 곳으로 데려가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초등학생임에도 저학년 아동이 혼자 있는 시간을 미리 파악하고 CCTV 없는 곳으로 가자고 하는 등 매우 계획적이며 지능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는 주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가해자로 인한 피해가 많았지만 최근에 알려진 딥페이크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지인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통상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으로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게 하고 전송받는 행위가 가장 많은데, 가해 유형 1위는 통신매체 이용, 2위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3위는 불법 촬영물 소지, 4위는 허위영상물 유포, 5위는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순이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온라인 그루밍 수법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고, 소셜 미디어, 채팅 앱, 온라인 게임 등 다양한 인터넷 플랫폼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일어나기 때문에 가해자는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고, 조종하기 쉬운 아동·청소년을 범행 대상으로 선택합니다. 가해자는 피해아동이 타인에게 자신의 행위를 알리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와 통제를 하며, 그 때문에 피해아동은 자신이 착취당하고 있음을 인지하게 되더라도 이를 보호자나 경찰에 알리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당하는 상황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센터에 내원하는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피해 사례를 보면 피해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보다 피해 아동의 휴대폰을 보고 사실을 알게 된 부모가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다른 성폭력 범죄보다 자신의 행위를 범죄로 인식하지 않고 일상적인 또래 놀이문화로 생각한다는 점이 특이할 만한 점입니다.

같은 반 여학생의 얼굴에 나체사진을 합성하여 단톡방에 유포하는 지인능욕, 지인합성을 친구들끼리 흔히 할 수 있는 장난이라고 여기거나, 오픈채팅방에 누군가가 올려 놓은 성적 표현물을 채팅방에 있는 모두가 봤고 불법 촬영물인지 몰랐다면 억울해 하기도 합니다.

코로나 상황 이후 성폭력 가해자의 연령이 낮아지고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상황은 디지털 기기의 사용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의 대중화로 인해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성적 콘텐츠를 접하는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왜곡된 성문화를 양산하고 청소년의 성범죄를 증가시키는 원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년들의 폭력적인 성문화는 또래 간의 성폭력 가해·피해, 혐오, 성적 농담, 불법 촬영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누구나 쉽게 성적 콘텐츠를 접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교육 및 정책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성교육은 성 가치관과 성인지 감수성에 주요한 관점을 제시하고 자신과 타인을 소중하게 여기는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해와 가치관, 판단력을 갖고 나의 건강을 관리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성교육을 통해 일상의 차별과 왜곡된 성 인식을 알아채고 혐오와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안적 방법을 고민합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통해 온라인에서 얻는 정보에 대한 문해력을 갖추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험성과 대응하기 위한 실천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온라인 그루밍의 처벌 근거를 신설하고 위장수사 특례를 마련, 랜덤 채팅앱에 대해서는 실명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으로 회원을 관리, 대화 저장 및 신고하는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게 하는 등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 더 이상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고 안전한 온라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한 법률 개정 및 제도 개선과 함께 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 지자체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동청소년 디지털성폭력 피해 현황과 향후 지원 방향

류혜진(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팀장)

1. 들어가며

n번방 성착취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공론화 되었고, 이에 대응하고자 인천여성가족재단은 인천광역시의 수탁을 통해 2021년 6월 14일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이하 인천센터)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2023년 9월「인천광역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 더욱 공고화되었다. 최근 용기 있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디지털 매체와 성착취적 문화가 결합되어 발생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고자 2024년 10월 16일「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가 법적으로 마련되었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에 있어서 “반포목적”이라는 제한 사항이 삭제되었고,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해서도 소지·구입·저장·시청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설 되었으며, 유포협박죄에도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포함하는 것으로 처벌 범위가 확대 되었다.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매체와 성착취적 성문화가 결합하여 발생하는 젠더 기반 여성폭력이다. 특히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접한 현 세대의 아동청소년은 한글보다도 스마트폰을 더 일찍 접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이다. 생각도 의사소통도 관계도 스마트폰 없이 불가능한 아동청소년들에게는 스마트폰은 나와 분리된 기기가 아니라 일종의 확장된 신체이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절대 다수가 여성청소년이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이렇듯 디지털 매체가 성착취적으로 활용되어 아동청소년의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때, 아동청소년 성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현황과 이에 대한 실질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할 것이다. 이번 토론에서는 이를 위해 인천센터의 아동청소년 피해 지원내용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자 지원 뿐만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 현황 및 적극 지원 사례

인천 센터는 불법촬영, 비동의유포, 유포협박, 유포불안, 사진합성, 온라인그루밍, 사이버괴롭힘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지원·예방하는 기관으로 전화, 온라인게시판, 방문, 기관연계 등을 통해 피해가 접수되면 상담지원을 통해 지원 계획을 수립한 후 피해촬영물 삭제지원, 법률상담 및 변호사 연계 등의 법률지원, 고소장 작성, 증거수집 지원 등의 서류작성 지원, 경찰서 진술 및 재판 모니터링의 동행지원, 정신건강의학과 의료비 지원, 심리상담비 지원, 치유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통합지원하고 있다. 2021년 6월 14일 개소 이후 2024년 9월 30일까지 약 731명의 피해자를 지원했으며, 이중 271명(37%)가 아동청소년 피해자이며, 이중 약 90%가 여성피해자이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불법촬영이 2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온라인그루밍이 15%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온라인그루밍 111건 중 5건을 제외하면 피해자는 모두 아동청소년이다. 또한 딥페이크 성범죄(사진합성) 피해자는 총 48명인데 이중 32명이 용기 있는 피해자에 의해 딥페이크 성범죄가 공론화된 2024년 8월 이후 접수된 피해자이다. 이 중 연령이 확인된 28명 중 75%인 21명이 아동청소년 피해자이다.

□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피해자 세부 현황

(21. 6. 14.~24. 9. 30. 누적명수)

구분	합계	연령별						
		10대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연령미상
여	613 (83.2%)	5	236	204	58	42	14	54
남	118 (16.8%)	0	30	26	8	10	10	34
합계	731	5 (0.7%)	266 (36.4%)	230 (31.5%)	66 (9.0%)	52 (7.1%)	24 (3.3%)	88 (12.0%)

□ 피해 유형별 현황

(21. 6. 14.~24. 9. 30. 누적건수)

구분	총 건수	불법 촬영	비동의 유포	유포 협박	유포 불안	사진 합성	사이버 괴롭힘	온라인 그루밍	기타
제1피해*	731	187 (26%)	74 (10%)	98 (13%)	57 (8%)	48 (7%)	70 (9%)	111 (15%)	86 (12%)

*제1피해는 피해자의 가장 주된 피해를 의미함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동청소년 스스로가 피해를 인지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센터에 3년 3개월간 접수된 아동청소년 피해 271건 중 아동청소년 피해

자가 스스로 접수한 건은 39건으로 전체 피해의 14% 정도이다. 즉, 대다수의 피해는 보호자나 교사 등 아동청소년의 주변인에 의해 발견되고, 이때는 이미 피해 상황이 어느 정도 심각해진 이후인 경우가 많다. 이는 아동청소년이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고 타인과 관계 맺는 방법에 대해 알아가고 있는 성장 시기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의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섹슈얼리티의 성장 과정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겪은 아동청소년은 성착취적 형태로 성과 관계 맺게 되면서 다시 피해를 입거나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에 노출되게 된다. 실제로 센터의 피해 사례의 경우 피해 사건으로 접수되어 지원을 받은 이후, 또는 받고 있는 중에도 재피해를 경험하는 아동청소년들이 있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피해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상담지원, 삭제지원, 법률지원)로는 완전한 대응이 불가능하다. 피해 아동청소년들의 디지털 매체 활용 능력(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성적으로 타인과 관계 맺는 능력, 성착취적 문화 속에서 어떻게 성적 주체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등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아동청소년은 동일한 상황에서 또다시 반복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 상황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센터는 2021년 처음 피해자를 지원한 이후 2022년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위해 미술, 푸드, 연극 등을 활용한 매체 기반 치유프로그램을 마련하였고, 2023년에는 인천교육청과의 협업을 통해 초등학교 6학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아동청소년 피해 지원에 있어서 각 사례별로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피해상황에서 벗어나 또다시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피해자, 보호자, 지원자 등이 함께 고민하여 이를 개별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사례1] 온라인 그루밍 피해자

[사례2] n번방 피해자

[사례3] 성매매, 성폭력 등 복합피해자

여기에 더해 2024년에는 부평청소년성문화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사례 맞춤형 성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2월부터 시작한 교육은 9월 30일 기준으로 6명을 대상으로 72회 이뤄졌으며, 인천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전 과정을 지원하고,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는 이렇게 지원받고 있는 피해자에게 피해자 맞춤형 성교육을 진행하여 아동청소년이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은 욕구,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인정받고 지지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성장과정을 잘 살피면서 피해를 경험한 아동의 심리상태를 이해하고, 주입식

교육의 한계를 벗어나 소통과 배려의 경험을 제공한다. 마음의 문을 연 피해자는 자신의 성에 대한 경험을 털어내기도 하고, 성에 대해 궁금했지만 누구에게도 물어볼 수 없었던 질문들을 하기 시작한다. 성착취적 사회 구조에 놓이게 되면서 성적인 존재로서의 “나”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성장기회를 놓치고 착취적 방식으로 내 몸을 타인에 의해 대상화된 형태로 만들어 버리는 온라인그루밍 범죄를 겪었던 피해자들이 성교육을 통해 피해 상황을 인식하고 스스로 성적 표현과 욕망을 착취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이뤄낼 수 있게끔 성장하도록 함께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이 가능한 것은 부평구청소녀성문화센터에서 각 피해 사례별로 회의를 통해 개별 피해자의 성장을 위한 필요한 실질적 교육을 개발·진행하고 있고, 피해가 더 확장되지 않도록 인천센터에서 함께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소결 :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성교육의 필요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중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로서 디지털 매체를 신체의 일부처럼 활용해온 세대이기 때문에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디지털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속해 있는 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디지털 성범죄는 일상과 분리되지 않은 채 잠재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온라인 그루밍 - 오프라인 성폭력 - 온라인 매개 성매매”는 아동·청소년의 섹슈얼리티 환경의 한 축을 이루면서 연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 속한 이러한 환경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인천센터와 부평구청소녀성문화센터가 협업하여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성교육이 이러한 프로그램의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가 더욱 교묘하게 피해자들의 일상생활에 파고들고 있다고 할 때, 이러한 섹슈얼리티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교육 대상을 더욱 확대하여 운영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놀이와 폭력의 경계, 교육을 묻다.

임영미(부원중학교 교사)

학교에서 또래 간 발생하는 성폭력은 욕설부터 신체접촉,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동, 디지털 성범죄 등 다양하다. 초등학교에 근무할 당시 6학년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사귀자고 고백하며 껴안기 등 신체적 접촉 시도와 함께 자신의 성기 사진을 문자로 전송하고, 그 여학생에게는 가슴 사진을 찍어 전송해 달라고 요청한 사례가 있었다. 중학교에서는 많은 학생들 앞에서 친구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시키는 사례도 있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인천의 모 고등학교에서 교사와 친구들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사진을 유포한 사건도 있다.

욕설은 또래 간에 자주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욕은 성과 관련하거나 여성, 부모를 비하하거나 혐오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학생들에게 욕의 의미를 아는지, 왜 사용하는지 물어보았을 때 가장 많은 답변은 ‘그냥이요’였다. 이는 욕의 뜻도 모르고, 아무 의미 없이 단지 기분 나쁘거나 재미있으려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해마다 성교육을 시작하기에 앞서 학생들 간 성지식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첫 시간에는 학생들이 궁금해 하는 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학생들이 답을 하는 활동을 한다.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앞선 초·중학교 사례의 가해 학생들도 ‘장난이었어요’라고 답변을 했는데 놀이와 경계 침해로 일어나는 성폭력의 인지 부족으로 재미 있으면 장난이고, 장난으로 한 행동은 ‘괜찮다’는 잘못된 인식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기일보(2024년 10월 21일 [긴급점검 청소년 성(性)인식] 성범죄 심각성 몰라... ‘선 넘은 장난’ 기사문 중)에서 실시한 경기지역 청소년 성인식 실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77%가 성적욕설·혐오표현을 들은 경험이 있고, 응답자의 4명 중 1명은 성폭력 가해 경험이 있다고 한다. 또한 가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게 이유를 묻는 질문(복수응답 허용)에 ‘재미있어서’라는 응답이 64.7%, ‘친구와 어울리기 위해’는 34.3%, ‘다른 사람들도 하나까’는 25.5%로 나타났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성은 하나의 놀이이자 자신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었으며, 성범죄에 대한 문제 인식은 낮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학생들에게 장난과 성폭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교육이라고 말한다.

학교 성교육은 교육부 지침에 의거하여 2015년부터 관련교과 등에서 성폭력예방 교육 3시간을 포함하여 연간 15시간이상 실시한다. 그럼에도 체계적인 성교육의 부재를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성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학생들은 학교에서 받는 성교육이 매우 형식적이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으로 현실에 도움이 안 되며, 시대와 맞지 않거나 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학생들이 받고 싶어 하는 교육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 간에 간극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교육부는 2015년 초·중·고 학년별로 ‘성교육 표준안’을 내놓은 이후 단 한 차례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내용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 결국 10년째 변화하지 않은 시대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안으로 교육을 실시하니 학생들과 간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혹자는 그럼 교사가 시대 흐름에 맞춰 교육 내용을 재구성하여 교육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할 것이다. 하지만 교사가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해 가르쳤을 때 학부모들로부터 ‘그런 걸 왜 가르치느냐’, ‘교육부 지침에 있는 내용이냐’는 등의 항의를 받으며,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성교육 교육과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초등은 독립된 수업시간 없이 범교과 및 관련 교과 시간에, 중등은 보건, 기술가정, 윤리 등 관련교과에서 가르칠 수 있다.

실제적으로 초등학교는 보건, 중학교는 보건교과에서 체계적인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보건수업을 진행하는 학년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성교육만을 위한 수업시간 확보가 어려워 관련 교과에서 성 내용을 언급만 하고 지나가는 형식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2022 개정교육과정’(현재 대부분의 학교는 ‘2015 개정교육과정’ 시행 중)에서 초등은 보건교육과정을 고시하지 않아 성교육 시간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중등도 보건교과를 선택하지 않으면 앞서 말한 것과 같은 형식적인 운영될 수밖에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작년과 올해 근무하는 학교에서 두 가지 형태의 또래 간 성문제가 발생했었다. 하나는 또래 간 성폭력 사안이었고, 다른 하나는 성행위를 묘사하는 행동이었는데 학생들 사이에서는 장난으로 여기는 분위기였다. 문제 발생 후 부평구 청소년성문화센터에 의뢰하여 교육을 실시했었는데 교육 효과는 교육 실시 방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또래 간 성폭력이 발생한 사례의 경우, 보건교과가 운영되지 않는 학년이라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전문강사가 교육을 진행했다. 외부강사의 단회기성 교육이다 보니 학생들에게 나타난 교육효과가 미비했었다.

보건교과를 운영하는 학년의 경우에는 보건교사가 매주 7차시 정도 성인지감수성을 향상시키는 성교육을 실시하고, 후속으로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또래성폭력 예방 교육을 2차시 실시하는 등 체계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교육했다. 교육 이후 학생들이 장난과 폭력을 구분하는 인지가 생기고 서로 잘못된 행동이나 말을 했을 때 주의를 주면 정확히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문

화가 조성되었다. 성교육이 효과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일회성 교육으로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성교육 운영을 위해서 달라진 청소년의 성문화에 맞는 성교육 목표와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한다.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성교육 내용의 변화도 필요하다. 사춘기 때 신체 변화 등 단순 정보전달을 넘어서 타인과 올바른 소통과 나와 타인의 경계를 존중하고 성평등한 관계를 맺는 성인권교육이 필요하다. 놀이와 장난을 넘어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제대로 된 성인식 형성 교육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시대 변화에 맞춘 성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의 확대 필요성

윤진숙(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

성인권교육이란 인간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성적 주체로서 자신의 성적권리와 타인의 성적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입니다.

성적 권리와 지식과 태도를 습득하며,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고, 성적 평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 확산을 목표로 합니다. 장애 아동·청소년 역시 성적 권리와 관련된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며 건강한 성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궁극적으로 장애청소년의 성적 권리가 존중 받는 문화를 확산하여 건강한 성장과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교육적 의미를 가집니다.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의 도입배경

인권의 지평을 넓히는데 중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1년 청각장애인 학교이면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이 도화선이 된 영화 「도가니」는 장애인성폭력 사건을 공론화시켰고 마침내 국가는 2013년부터 범정부 차원의 장애인 성폭력 대책으로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장애아동·청소년을 위한 성인권교육은 장애아동·청소년의 성적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토대가 되어 여러 유형의 장애아동·청소년들이 성적 주체로서 성과 관련하여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행동할 권리가 있음을 이해하고 건강한 성적 자아를 형성하며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존중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시민권 보장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성인권교육의 지원실태·현황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2013년부터 여성가족부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사업 지역운영기관으로 인천관내 특수학교 학생들과 초·중·고 특수학급학생들에게 자기결정권과 성적권리, 신체 정서적 변화에 대한 이해, 성폭력예방, 소통 및 평등한 관계맺기 등의 내용으로 성인권교육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여성가족부 사업폐지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상담소에서 수행한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장애아동·성인권교육현황을 아래의 표에서

살펴볼 때 신청학교가 선정학교보다 2021년 425%, 2022년 758%, 2023년 658%로 월등히 많았으며, 이는 교육에 대한 높은 욕구와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인권교육현황>

(단위: 교, 명, 회)

연도	선정학교수	실인원/연인원	교육회수	신청학교수	신청학교 대비 선정학교 비율
2021	12	81 / 746	120	51	425%
2022	12	80 / 742	120	91	758%
2023	12	84 / 759	120	79	658%

또한 2022년 전국 장애아동청소년성인권교육(2023.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만족도조사 결과 보고서에서도 성인권교육 만족도는 4.77점(5점 만점)으로 매우 높은 결과를 보였지만 아직도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 참여 경험이 없는 경우가 27.4%에 달하고 있습니다.

2022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성폭력상담 통계현황에 의하면 전체 성폭력 피해자 중 12%가 장애인 성폭력피해자였으며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중 발달장애인 피해자는 77%, 중복장애와 미등록장애인피해자는 23%를 차지했습니다.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대상자는 시각, 청각, 지체, 중복장애, 경계선지능인 이유로 미등록 장애인인 특수학급대상 학생입니다.

정보접근성이 낮고 정보를 이해하고 습득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발달장애학생과 중복장애, 경계선지능학생들에게 인지능력과 기능수준에 맞는 성인권교육으로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청소년의 성인권교육이 확대의 필요성

장애학생들이 독립적이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성적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필요한 성인권교육은 학생들이 건강하고 존엄하게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합니다.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한 이유로는

첫째, 장애학생들은 성교육의 기회가 제한적이고, 기존 성교육의 커리큘럼이 비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장애학생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학생들이 자신의 성적 권리와 안전에 대해 이해의 편차가 생깁니다. 교육기회의 확대를 통해 교육적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고, 그들의 장애유형과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 제공을 통해 자신의 성적권리를 인식하고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장애학생의 경우 신체적·의사소통상의 제약으로 인해 폭력상황에 더 취약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인권교육을 확대함으로써 장애학생들의 성적 확대를

예방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 지식(지원체계), 기술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하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대처 능력을 기르며, 성적학대 예방을 위한 방어력의 힘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한정된 교육시간을 제외하고 장애 아동·청소년들이 접하는 성에 대한 정보나 일반화된 성교육과정은 장애학생들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에 맞지 않아 올바른 성적 발달과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적발달에 대한 긍정적이고 올바른 인식의 제공은 성인권교육 기회의 확대로 장애아동·청소년들이 스스로를 존중하고 건강한 자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넷째, 성인권교육의 확대는, 장애학생들의 성적 권리와 발달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보호 우선주의적 태도에서 비롯되어 장애학생들을 무성적 존재로 성장하길 바라는 교사나 양육자의 인식을 개선하고 성적 권리를 존중하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을 위한 맞춤형 자료와 전문 인력의 지원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여 장애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성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예산 지원과 일관된 정책을 펼쳐 모두의 성적 평등과 인권 존중 의식이 확립된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기대합니다.

교육적 회복으로서의 성교육

한선영(산곡남중학교 교사)

우리들의 ‘성(性)’은 바로 나, 우리들의 생명의 원리가 담긴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을 접근함에 있어서 생명보다 더 우선시되는 가치가 있을까요? 저는 학교 성교육 첫 시간에 학생들에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건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을 합니다. 학교 교육과정에 기술·가정, 도덕·윤리, 사회, 과학, 체육 등의 과목과 선택교과로 보건 과목에 성교육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든 혹은 가정에서라도 성교육의 방향성을 정할 때 ‘생명’이라는 가치가 최우선이 되고, 그 다음에 해부·생리학적 내용이든지 경계, 존중, 배려 같은 사회적·윤리적인 측면을 배워나가는 성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보건교사로 근무하며 수업 시간과 보건실에서 만나는 학교 학생들을 보면 각자 성에 관한 지식과 성인지 감수성의 격차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학생은 교과 수업 시간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 시간의 성교육 내용만으로도 생소해 하며 부끄러워하고, 또 일부 학생들은 미디어나 또래 문화 등을 통해 접했을 것 같은 내용들까지 두루 섭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학교에서 진행되는 성교육에 대해 존중해 주시고 이의가 없으신데 어떤 학부모님은 자녀가 성폭력 관련 가·피해 사안이 교내에서 발생하면 학교에서 제대로 된 성교육을 시켰는지에 대해서 민원을 넣으시고, 또 어떤 학부모님은 ‘왜 학교 성교육 시간에 피임방법을 가르치는가?’라는 항의성 전화를 주셨다는 동료 선생님들의 말씀도 전해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단체에서는 학교에서 특정 내용과 관련된 성교육을 시키지 말라고 공문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가하면 자녀에게 필요한 성교육을 제대로 학교가 진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며 00과목 시간에 성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왜 가르치지 않았냐고 전화해서 따지시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교과연구회나 수업 나눔 연수 등에서 만나는 선생님들 중에는 일부 학부모님들과 특정 단체의 민원이 부담스러워서 성교육을 본인 역량 만큼 못 하고 계신 선생님들도 계셨습니

다. 더욱 안타까운 경우는 성교육 시간에 학생들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듣거나 그런 행위를 목격하신 선생님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학생-교사-학부모님 간에도 성교육에 대한 지식, 가치관이나 방향이 다른 것 같습니다. 갈수록 성 관련 교권 침해와 학교폭력 신고 사안이 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 학생들의 교육 결손의 기간이 길었던 것, 공동체보다 개인이 우선시되는 자기중심성, 이로 인해 서로 소통과 배려가 약해진 문화 등등 복합적 요인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팬데믹으로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성교육의 부재는 학생들이 경계존중이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또래간에 해도 되는 장난과 폭력을 모호하게 혼동하며 경계를 침해하는 행동을 구분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이나 미디어에 접근이 용이하고 활용 능력이 뛰어난 아동·청소년들은 다양한 성적 위협의 가·피해 노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미디어 사용에 대한 사전교육이 없어 불법촬영과 가짜 콘텐츠의 영상물을 만들어 내고 이미지 합성의 딥페이크 성범죄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딥페이크 기술은 많은 분야에서 긍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성적대상화와 성 상품화가 난무하는 사회에서 아동·청소년들은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성문화에 노출되어 그대로 답습하며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른채 어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도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서로를 존중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지만 우리 학생들은 다른 사람의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알고 있더라도 일상에서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인식조차 부족한 경우도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과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 아이들이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회복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성 인권 교육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데 생명의 소중함,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타인도 나처럼 소중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 어떻게 관계를 맺고 소통해 나갈지, 서로의 경계를 지키며 존중과 배려가 있는 관계 맺음 등등...

하지만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교사가 완벽하게 이런 성교육을 하기는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부평구에는 '부평구청소녀성문화센터'가 있어서 좋은 교육, 좋은 자원

들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산곡남중 학생들은 1학년 때부터 교육과정 안에 있는 각 과목들 수업 시간에도 성교육을 이수하지만 추가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시간에 성문화센터의 전문강사님들을 섭외하여 성교육을 최소 3회 이상 받고 2, 3학년이 되어도 일 년에 최소 1회 이상은 전문강사님이 진행하는 성교육을 받습니다.

산곡남중은 한 개 학년이 9개 학급이어서 예산의 문제뿐 아니라 9명의 외부강사를 섭외하여 동시에 교육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임에도 ‘부평구청소녀성문화센터’의 강사 인력 풀 덕분에 가능한 수업이었습니다.

축제 때는 ‘움직이는 성문화체험관’의 다양한 주제별 체험부스가 교내에서 운영되어 2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부평구 외에 다른 구 소속 보건 선생님들께 좋은 강의와 축제 체험부스 등을 소개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저는 ‘부평구청소녀성문화센터’는 정말 좋은 성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평구의 예산 지원을 통해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교육 지원도 받을 수 있어 다행이고 교육의 질과 대상에 맞는 교육 내용들이 잘 구성되어 있어서 학생들도 교육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성문화센터는 학생대상의 교육 외에도 교사와 학부모님을 위한 특강을 매년 몇 차례씩 진행하며 청소년들의 성지도 방법이나 상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교사와 양육자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성교육 특강에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건강한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양육자와의 소통을 통한 가정 안에서의 성교육이 중요한데 양육자 성교육 특강을 통해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교사 또한 일상에서의 성교육 지도방법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발생하는 성 사안에 대한 대응방법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인디언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교도, 교사들도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지만 가정에서도 자녀들의 학업 외에 건강한 성 발달을 위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저의 성교육 방침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학생 성교육 시간에 돌발 상황이나 불미스러운 상황을 염려하시는데 저는 성교육 첫 시간에 학생들과 서약서를 통해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 드린 ‘성’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생명’과 연관되어 있음을 충분히 이해를 시킵니다. 그 결과 매년 1학년 9개 학급씩을 4년째, 한 학급마다 6차시 정도의 성교육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 번도 불쾌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성교육 시간에 진지한 자세로 임하니 저도 더 많은 시도와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이성교제와 성적자기결정권’ 수업 시간은 ‘읽·걷·쓰’(읽고 걷고 쓰기)로 진행하였고, ‘임신·출산과 피임방법’시간에는 콘돔실습, ‘성매개 감염병 예방’ 수업 시간에는 전문강사를 초빙해 에이즈 예방 강의를 진행 했습니다. 주제에 따라 교과연구회 등에서 수업 나눔을 할 때 선생님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며 ‘이런 성교육이 가능해요?’, ‘성교육 할 때 수업 분위기가 괜찮아요?’, ‘아이들이 잘 따라 와줘요?’, ‘학부모님들 민원은 없어요?’ 등등 우려 섞인 질문을 합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과의 성교육 시간이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교육과정 안에서 성교육 위해 애쓰시는 여러 선생님들의 노력과 학교가 다 채우지 못하는 성교육을 지역사회 내 청소년성교육 전문기관의 지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가정에서부터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심어주신 학부모님들의 노력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학교-지역사회 기관-가정이 힘을 합해서 교육적 회복으로서의 성교육에 매진한다면 우리 학생들은 분명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나 자신과 남을 동등하게 소중히 여길 줄 알고, 그로 인해 경계 존중과 배려를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부 록

설문집계 결과표

조사개요

조사대상 및 설문인원	-초등 5·6학년(200명) -중·고등학생(409명) -교사(100명)
조사기간	2024년 7월 17일부터 9월 6일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 : 자기기입식(Self-Reported)설문조사

<초등대상 청소년 성의식조사 설문집계 결과>

번호	질문내용	인원(명)	비율(%)
1	나는 연예인의 외모를 닮고 싶다	200명	100%
	① 매우 그렇다	49명	25%
	② 대체로 그렇다	58명	29%
	③ 보통이다	37명	19%
	④ 별로 그렇지 않다	34명	17%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2명	10%
2	성에 대해 관심과 호기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럽다	200명	100%
	① 매우 그렇다	25명	13%
	② 대체로 그렇다	53명	27%
	③ 보통이다	80명	40%
	④ 별로 그렇지 않다	28명	14%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4명	6%
3	성에 대해 다른 사람과 이야기 나누는 것이 부끄럽다	200명	100%
	① 매우 그렇다	20명	10%
	② 대체로 그렇다	64명	32%
	③ 보통이다	54명	27%
	④ 별로 그렇지 않다	49명	25%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3명	6%
4	사춘기 시기의 몸과 마음의 변화에 대해 부정적이다/두렵다	200명	100%
	① 매우 그렇다	16명	8%
	② 대체로 그렇다	34명	16%
	③ 보통이다	38명	19%
	④ 별로 그렇지 않다	73명	37%
	⑤ 전혀 그렇지 않다	39명	20%
5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에서 차별과 폭력적인 말을 들어 본 경험이 있다	200명	100%
	① 매우 그렇다	40명	20%
	② 대체로 그렇다	38명	19%
	③ 보통이다	21명	10%
	④ 별로 그렇지 않다	40명	20%
	⑤ 전혀 그렇지 않다	61명	31%
6	또래 친구에게 불편함을 느껴도 표현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200명	100%
	① 매우 그렇다	31명	16%
	② 대체로 그렇다	41명	21%
	③ 보통이다	43명	22%
	④ 별로 그렇지 않다	47명	22%
	⑤ 전혀 그렇지 않다	38명	19%
7	성별에 따라 잘 하는 것이 다르다고 생각 한다	200명	100%
	① 매우 그렇다	26명	13%
	② 대체로 그렇다	49명	24%
	③ 보통이다	34명	17%
	④ 별로 그렇지 않다	47명	24%
	⑤ 전혀 그렇지 않다	44명	22%
8	성에 대한 정보나 지식은 주로 어디에서 얻나요? (복수응답)	200(342)명	100%
	① 부모	71명	21%
	② 형제자매	11명	3%
	③ 친구나 선후배	36명	11%
	④ 잡지나 TV 등 대중매체	5명	1%
	⑤ 인터넷(스마트폰, 지식인 등) 검색	48명	14%
	⑥ 교사(보건교사 또는 교과교사)	84명	25%
	⑦ 성교육 책	24명	7%

	⑧	외부 성교육 전문가	57명	17%
	⑨	기타	6명	2%
9	요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입니까?		200명	100%
	①	외모	35명	17%
	②	이성 친구(연애)	19명	10%
	③	몸의 변화	16명	8%
	④	성에 대한 호기심	10명	5%
	⑤	부모와의 갈등	11명	6%
	⑥	친구와의 갈등	24명	12%
	⑦	감정의 기복	13명	7%
	⑧	공부와 진로	49명	23%
10	⑨	기타 (게임, 키, 성적, 게임 승급, 성장통, 배드민턴, 돈과 카드, 유튜브 조회수 하락, 대회 참가, 사회 불평등, 야구, 동생과의 갈등 등)	23명	12%
	성적영상물(글, 영상, 사진 등)을 처음으로 접했던 시기는 언제인가요?		200명	100%
	①	초등학교 입학 전	2명	1%
	②	초등 1학년	2명	1%
	③	초등 2학년	4명	2%
	④	초등 3학년	11명	6%
	⑤	초등 4학년	24명	12%
	⑥	초등 5학년	51명	25%
	⑦	초등 6학년	21명	11%
11	⑧	한 적 없다	85명	42%
	성적영상물(글, 영상, 사진 등)을 보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복수응답)		200(310)명	100%
	①	기분이 좋았다	9명	8%
	②	기분이 좋지 않았다	44명	14%
	③	따라하고 싶은 느낌이 들었다	6명	2%
	④	죄를 지은 느낌 이었다	26명	8%
	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다	40명	11%
	⑥	불안한 느낌이 들었다	16명	5%
	⑦	더럽다고 생각되었다	44명	14%
	⑧	흥분되었다	2명	1%
	⑨	자꾸 생각이 났다	17명	5%
	⑩	민망하고 부끄러웠다	18명	5%
	⑪	혐오감이 들었다	30명	9%
	⑫	아무 느낌 없었다	22명	7%
	⑬	또 보고 싶었다	3명	1%
	⑭	기타 (당황스럽다/ 징그럽다/ 짜증났다/ 수치심이 들었다)	33명	10%
12	성폭력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두렵다		200명	100%
	①	그렇다	130명	65%
	②	아니다	70명	35%
13	나도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200명	100%
	①	그렇다	153명	76%
	②	아니다	47명	24%
14	나도 성폭력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200명	100%
	①	그렇다	72명	36%
	②	아니다	128명	64%
15	성폭력은 피해자가 조심하면 예방할 수 있다		200명	100%
	①	그렇다	82명	41%

	②	아니다	118명	59%
16		친한 사이에서는 성폭력이 일어날 수 없다	200명	100%
	①	그렇다	31명	16%
	②	아니다	169명	84%
17		야한 말이나 성적 수치심이 드는 이야기 (복수응답)	200명	100%
	①	피해(받아본 적)	66명	33%
	②	가해(해본 적)	33명	17%
	③	없다	101명	50%
18		성적으로 외모에 대한 놀림 (복수응답)	200명	100%
	①	피해(받아본 적)	61명	30%
	②	가해(해본 적)	28명	15%
	③	없다	111명	55%
19		옷 벗기기	200명	100%
	①	피해(받아본 적)	15명	7%
	②	가해(해본 적)	11명	6%
	③	없다	174명	87%
20		SNS를 통한 채팅에서 야한 문자나 사진 전송 (복수응답)	200명	100%
	①	피해(받아본 적)	13명	6%
	②	가해(해본 적)	5명	3%
	③	없다	182명	91%
21		불법촬영(몰.카) (복수응답)	200명	100%
	①	피해(받아본 적)	13명	6%
	②	가해(해본 적)	3명	2%
	③	없다	184명	92%
22		성기노출 (복수응답)	200명	100%
	①	피해(받아본 적)	6명	3%
	②	가해(해본 적)	8명	4%
	③	없다	186명	93%
23		몸(성기, 가슴, 엉덩이, 허벅지 등) 만지는 것 (복수응답)	200명	100%
	①	피해(받아본 적)	29명	15%
	②	가해(해본 적)	32명	16%
	③	없다	139명	69%
24		강제적인 성관계(강간) (복수응답)	200명	100%
	①	피해(받아본 적)	4명	2%
	②	가해(해본 적)	5명	3%
	③	없다	191명	95%
25		없다 (복수응답)	200명	100%
	①	피해(받아본 적)	92명	46%
	②	가해(해본 적)	87명	43%
	③	없다	21명	11%
26		만약 위와 같은 경험이 있다면 누구에게 말할 것입니까? (복수응답)	200(250)명	100%
	①	친구	20명	8%
	②	부모나 가족	119명	48%
	③	선생님(학교, 학원)	24명	9%
	④	상담소	12명	5%
	⑤	경찰관	43명	18%
	⑥	믿을 수 있는 어른(친·인척, 이웃 등)	11명	4%
	⑦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다	13명	5%
	⑧	기타 (그냥 화해하고 그러지 말라고 끝날 것 같아서 말하지 않겠다/ 부끄러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 말하기 싫어서/ 장난이 어서)	8명	3%

27	학년		200명	100%
	①	초등5학년	105명	53%
	②	초등6학년	95명	47%
28	성별		200명	100%
	①	여성	95명	47%
	②	남성	105명	53%
29	지역		200명	100%
	①	부평구	137명	69%
	②	타 지역	63명	32%
30	성과 관련해서 궁금하거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생리대(월경대) 어떻게 사용하나요?/ 사춘기를 하면 화가 많아지나요?/ 만약 자위를 한다면 생리기간이 늘어나나요?/ 엄마에게 월경통이 없는데 저에게는 있어요...			

<중·고등대상 청소년 성의식조사 설문집계 결과>

번호	질문내용	인원(명)	비율(%)
1	성에 대해 나의 생각(또는 느낌)은? (복수 응답)	409(686)명	100%
	① 호기심(궁금증)이 생긴다.	114명	17%
	② 신기하다.	76명	11%
	③ 아름답다.	30명	4%
	④ 재미있다.	47명	7%
	⑤ 부끄럽다.	63명	9%
	⑥ 불편하고 거북하다.	17명	2%
	⑦ 비밀스럽다.	62명	9%
	⑧ 자연스럽다.	137명	20%
	⑨ 소중하다.	114명	17%
	⑩ 기타	26명	4%
2	성에 대한 정보나 지식은 주로 어디에서 얻습니까? (복수 응답)	409(659)명	100%
	① 부모	59명	9%
	② 형제, 자매	12명	2%
	③ 친구나 선·후배	121명	18%
	④ 인터넷(스마트폰, 지식인 등)	180명	27%
	⑤ 교사(보건교사 또는 교과교사)	113명	17%
	⑥ 성교육 도서	19명	3%
	⑦ 외부 성교육 강사	146명	22%
	⑧ 기타	9명	2%
3	성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경우 누구와 의논하나요? (복수 응답)	409(455)명	100%
	① 부모	82명	18%
	② 형제, 자매	13명	3%
	③ 친구나 선배	80명	18%
	④ 학교교사	3명	1%
	⑤ 성교육·성상담 전문가	14명	3%
	⑥ 인터넷 네티즌	17명	4%
	⑦ 의논하지 않는다.	111명	24%
	⑧ 고민이 없다	133명	29%
	⑨ 기타	2명	0%
4	그동안 받았던 성교육은 도움이 되었나요?	409명	100%
	① 매우 도움이 되었다.	86명	20%
	②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	136명	31%
	③ 보통이다.	128명	30%
	④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34명	8%
	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21명	5%
	⑥ 기타	27명	6%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피임방법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음/ 매년 같은 내용만 반복 한다/ 항상 비슷하고 뻔한 것만 가르친다.)		
5	성교육은 누구/어디로부터 받고 싶습니까? (복수 응답)	409(451)명	100%
	① 성교육 전문기관	247명	55%
	② 인터넷(스마트 폰, 지식인 등) 검색	49명	11%
	③ 친구나 선·후배	30명	7%
	④ 교사(보건교사 또는 교과교사)	75명	17%
	⑤ 성교육 도서	14명	3%
	⑥ 부모 형제자매	29명	6%
	⑦ 기타	7명	1%
6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성교육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3개 체크)	409(1118)명	100%

	①	성평등(성인지감수성)	159명	14%
	②	사춘기 이해	146명	13%
	③	연애와 피임 교제성폭력	219명	20%
	④	성적자기결정권, 의사소통	106명	9%
	⑤	성인권(차별과 혐오, 성적체성, 외모지상주의 등)	132명	12%
	⑥	경계존중(또래성폭력)	53명	5%
	⑦	성폭력, 성매매 이해와 대응	165명	15%
	⑧	성적표현물 및 디지털성범죄 이해와 대응	135명	12%
		기타 (딥페이크/ 올바른 피임방법)	3명	0%
7		성적영상물(글, 영상, 사진 등)을 보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복수응답)	409(679)명	100%
	①	기분이 좋았다.	44명	6%
	②	기분이 좋지 않았다.	72명	11%
	③	따라하고 싶은 느낌이 들었다.	17명	3%
	④	죄를 지은 느낌이었다.	59명	9%
	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다.	32명	5%
	⑥	불안한 느낌이 들었다.	33명	5%
	⑦	더럽다고 생각되었다.	55명	8%
	⑧	흥분되었다.	42명	6%
	⑨	자꾸 생각이 났다.	56명	8%
	⑩	민망하고 부끄러웠다.	85명	13%
	⑪	혐오감이 들었다.	36명	5%
	⑫	아무 느낌 없었다.	97명	14%
	⑬	또 보고 싶었다.	28명	4%
	⑭	기타	23명	3%
8		성적표현물(글, 영상, 사진 등)을 처음으로 접했던 시기는 언제인가 요?	409명	100%
	①	초등학교 입학 전	2명	1%
	②	초등 1-2학년	9명	2%
	③	초등 3-4학년	25명	6%
	④	초등 5-6학년	152명	37%
	⑤	중 1학년	85명	20%
	⑥	중 2학년	33명	8%
	⑦	중 3학년	22명	6%
	⑧	고 1학년	12명	3%
	⑨	고 2학년	3명	1%
	⑩	접한 적 없다.	66명	16%
9		10대가 연애(다른 사람을 사귀는)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스킨 십에 모두 V 표시 해 주세요. (복수응답)	409(1160)명	100%
	①	절대로 안 된다.	16명	1%
	②	손잡기	362명	31%
	③	뽀뽀	241명	21%
	④	포옹	321명	28%
	⑤	키스	141명	12%
	⑥	성기나 가슴을 만짐	45명	4%
	⑦	성관계	28명	2%
	⑧	기타 (볼 만지기/ 머리 쓰다듬기/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정도까지 가능)	6명	1%
10		연애 경험이 있나요?	409명	100%
	①	있다.(11번으로)	159명	39%
	②	연애 중이다.(11번으로)	25명	6%

	③	없다.	225명	55%
	④	기타		
11		사귀는 사이(연애)에서 스킨십을 할 때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스킨십을 하였나요?	184명	100%
	①	동의를 구했다.(12번으로)	155명	84%
	②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12번으로)	29명	16%
12		원하지 않는 스킨십을 강요받았을 때 나는 어떻게 했나요?	141명	100%
	①	거부했다.	84명	60%
	②	거부하기 어려워서 가만히 있었다.	31명	22%
	③	기타 (강요받은 적 없음)	26명	18%
13		강요받은 스킨십을 거부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31(90)명	100%
	①	상대가 무안해 할까봐	24명	27%
	②	사이가 멀어지거나 헤어지게 될까봐	31명	34%
	③	싸우기 싫어서	14명	16%
	④	상대가 거절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1명	1%
	⑤	거절한 후 불이익이 있을까봐	4명	4%
	⑥	기타	16명	18%
14		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나요?	409명	100%
	①	있다.(15번으로)	17명	4%
	②	없다.	392명	96%
15		성관계를 처음 한 시기는 언제인가요?	17명	100%
	①	초등 1-3학년	1명	6%
	②	초등 4-6학년	3명	17%
	③	중 1학년	4명	24%
	④	중 2학년	3명	18%
	⑤	중 3학년	1명	6%
	⑥	고 1학년	3명	18%
	⑦	고 2학년	2명	11%
16		성관계 시 피임을 했나요?	17명	100%
	①	항상 한다.	4명	24%
	②	자주 한다.	1명	4%
	③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	4명	24%
	④	거의 안 한다.	4명	24%
	⑤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4명	24%
17		피임을 한 적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13명	100%
	①	설마 임신할 것 같지 않아서	1명	7%
	②	분위기를 깰까봐	1명	7%
	③	나를 성경험이 많은 사람으로 볼까봐	0명	0%
	④	상대방이 원하지 않아서	0명	0%
	⑤	성적 쾌감이 덜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2명	14%
	⑥	피임방법을 몰라서	4명	30%
	⑦	피임도구를 구하기 어려워서	2명	14%
	⑧	갑자기 얼떨결에 성관계를 하게 돼서	1명	7%
	⑨	기타	3명	21%
18		성폭력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두렵다.	409명	100%
	①	그렇다.	242명	60%
	②	아니다.	167명	40%
19		나도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409명	100%
	①	그렇다.	279명	69%
	②	아니다.	130명	31%
20		나도 성폭력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409명	100%
	①	그렇다.	189명	46%
	②	아니다.	220명	54%

21	성폭력은 피해자가 조심하면 예방할 수 있다.		409명	100%
	①	그렇다.	148명	36%
	②	아니다.	261명	64%
22	사귀는 사이에서는 성폭력이 일어날 수 없다.		409명	100%
	①	그렇다.	106명	25%
	②	아니다.	303명	75%
23	섹드립, 패드립 (복수응답)		409(500)명	100%
	①	피해경험	199명	40%
	②	가해경험	107명	21%
	③	없다	194명	39%
24	성적인 수치감을 주는 소문을 퍼트림 (복수응답)		409(426)명	100%
	①	피해경험	53명	12%
	②	가해경험	34명	8%
	③	없다	339명	80%
25	SNS를 통한 채팅에서 성적인 말이나 사진 전송 (복수응답)		409(437)명	100%
	①	피해경험	68명	16%
	②	가해경험	43명	10%
	③	없다	326명	74%
26	옷 벗기기 (복수응답)		409(429)명	100%
	①	피해경험	39명	9%
	②	가해경험	37명	9%
	③	없다	353명	82%
27	동의 없는 촬영과 업로드 (복수응답)		409(427)명	100%
	①	피해경험	47명	11%
	②	가해경험	35명	8%
	③	없다	345명	81%
28	버스나 지하철에서의 성추행 (복수응답)		409(460)명	100%
	①	피해경험	47명	10%
	②	가해경험	35명	8%
	③	없다	378명	82%
29	만약 위와 같은 경험이 있다면 누구에게 말할 것입니까?		409(494)명	100%
	①	친구	85명	17%
	②	부모나 가족	172명	35%
	③	교사(학교, 학원 등)	40명	8%
	④	상담소	47명	10%
	⑤	경찰관	78명	16%
	⑥	믿을 수 있는 어른(친인척, 이웃 등)	24명	5%
	⑦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다	37명	7%
	⑧	기타 (실질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친구들 간의 장난으로 넘기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 부끄럽다/ 상황이 커지면 주변 사람이 걱정할까 봐)	11명	2%
30	학년		409명	100%
	①	중학생	209명	51%
	②	고등학생	200명	49%
31	성별		409명	100%
	①	여자	168명	41%
	②	남자	241명	59%

<교사 대상 청소년 성의식조사 설문집계 결과>

번호	질문내용	인원(명)	비율(%)
1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100명	100%
	① 20대	9명	9%
	② 30대	18명	18%
	③ 40대	42명	42%
	④ 50대	28명	28%
	⑤ 60대 이상	3명	3%
2	귀하가 근무하는 학교는 어디입니까?	100명	100%
	① 초등학교	28명	28%
	② 중학교	12명	12%
	③ 고등학교	59명	59%
	④ 기타	1명	1%
3	아동·청소년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00명	100%
	① 매우 필요하다	82명	82%
	② 필요하다	17명	17%
	③ 필요하지 않다	1명	1%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0명	0%
4	성교육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00명	100%
	① 매우 필요하다	82명	82%
	② 필요하다	14명	14%
	③ 필요하지 않다	4명	4%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0명	0%
5	성교육전문기관이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문적 성교육 지식의 전달자가 필요/ 제대로 된, 그 단계에 맞는 성교육이 꼭 필요하다/ 전문적·체계적 교육&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차원에서 교육을 의뢰하고 전문적으로 전행해주실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성교육이 더 원활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 잘못된 성에 대한 관념을 가진 친구들이 많음/ 전문가에 의한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 심리·정서적으로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 전문가 의견이 아닌 왜곡된 교육방식/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무분별한 만남/ 성교육은 전문영역으로 전문교육을 받은 전문가가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함/ 올바른 성문화 성의식을 위해/ 교사의 성교육전문성 부족/ 직·간접적 교육의 활성화 가능/ 성교육 체험 공간/ 성에 관해 전문적으로 다루어져 깊이가 있음/ 학교 내 성교육은 현실과 조금 동떨어짐/ 일관성 있는 성교육 지도가 필요함/ 다양한 성교육 사례와 경험이 있어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에서 학생나이, 장애, 성평등 맞춤교육 실시 가능/ 단체교육도 필요하지만 개별적인 성교육이 필요해서 전문기관이 필요함/ 현재의 성의식이 업데이트 되지 않은 교사들이 지도하기가 쉽기 때문		
6	선생님의 학교에서는 성교육(아동·청소년)시 성교육 전문 강사를 초빙하십니까?	100명	100%
	① 초빙 한다	80명	80%
	② 초빙하지 않는다	20명	20%
7	전문 강사를 초빙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20(25)명	100%
	① 예산 부족	12명	48%
	② 행정 절차 상의 어려움	3명	12%
	③ 전문 강사 섭외의 어려움	9명	36%
	④ 기타	1명	4%
8	전문 강사를 초빙한다면 그 형태는 어떻게 운영하시나요?	100명	100%
	① 각 교실	70명	70%
	② 일부집합+방송	16명	16%

	③	강당-체험부스 식	2명	2%
	④	강당-강의식	11명	11%
	⑤	방송강의	1명	1%
	⑥	기타	0명	0%
9	전문 강사를 초빙한 경우 도움이 되셨습니까?		100명	100%
	①	도움이 되었다	89명	89%
	②	보통이다	11명	11%
	③	도움이 되지 않았다	0명	0%
10	최근 우리 사회의 아동·청소년 성문화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100(274)명	100%
	①	성매매	17명	6%
	②	연애, 스킨십 및 교제 성폭력	46명	17%
	③	성관계로 인한 피해 (임신, 피임, 성병 등)	36명	13%
	④	왜곡된 성문화 습득, 가치관	72명	27%
	⑤	(또래)성폭력 및 디지털성범죄	58명	21%
	⑥	차별과 혐오(외모지상주의, 성적 대상화)	45명	16%
	⑦	기타	0명	0%
11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집중적으로 교육해 주었으면 하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100(279)명	100%
	①	성평등(성인지감수성)	16명	5%
	②	사춘기 이해	19명	6%
	③	연애와 피임, 교제성폭력	50명	19%
	④	성적자기결정권, 의사소통	48명	17%
	⑤	성폭력, 성매매 이해와 대응	30명	10%
	⑥	경계존중(또래성폭력)	34명	13%
	⑦	성인권(차별과 혐오_성 정체성, 외모지상주의 등)	36명	14%
	⑧	성적표현물 및 디지털성범죄 이해와 대응	46명	16%
	⑨	기타	0명	0%
12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교육(내용 및 운영전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명	100%
	①	충분하다	22명	22%
	②	다소 미흡하다	69명	69%
	③	아주 미흡하다	9명	9%
13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모두 체크해주세요 (복수응답)		100(131)명	100%
	①	시간부족	28명	21%
	②	전문성 부족	28명	21%
	③	교구 및 자료부족	13명	10%
	④	현실과 동떨어진 성교육	30명	24%
	⑤	이론중심 주입식 성교육	27명	20%
	⑥	평가 중심의 형식적인 운영	4명	3%
	⑦	기타	1명	1%
14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학생들이 받아들이지 않음/ 현실과 동떨어진 성교육/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이론적인 교육이 중점적임/ 학생들에게 와 닿지 않고, 뻔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 같음/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론적으로 알고 있음/ 단순 강의를 듣는 것은 아이들의 집중력 저하로 효율성이 낮음/ 성문화의 흐름이 빠르고 문제 상황이 다양하여 그에 따른 접근방법이 많이 있지 못함/ 현실에 맞지 않은 내용임.			
15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교사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한다면 참여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100명	100%
	①	있다	55명	55%
	②	없다	8명	8%

	③	생각해 보겠다	37명	37%
16		「교사 역량강화 연수」 시 원하는 내용이나 주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100(107)명	100%
	①	성인지감수성	24명	22%
	②	성 사안 중심	25명	23%
	③	학교 내(학생-학생, 학생-교사, 교사-교사 간)에서의성인권	32명	31%
	④	차별과 혐오	20명	19%
	⑤	성매매 실태와 대응	6명	5%
	⑥	기타	0명	0%
17		마지막으로 청소년성문화센터에 건의사항이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강의를 듣고 나서 이후 학교 내에서 성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가능한 한반에 강사 한분이 들어가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사안들 중심으로 직접 강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음/ 교사에게 성인지 감수성 교육보다 대응에 대해 연수해줬으면 좋겠음/ 학급인원이 적은 학교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음/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학습방법의 고민이 필요함/ 교육기회가 더욱 많았으면 좋겠음/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으면 함/ 학생 대상 성교육 신청 시 선정기준이 명확할 필요가 있음, 접수방식이 선착순형식은 개선이 필요함/ 개별성교육이 필요한 경우 양육자동행이 어려운 경우 비대면 교육방식도 있었으면 함/ 더 많은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설립되어 청소년들의 참여기회가 많아지고 건강한 성문화가 정착되길 바람.		

설문 조사지 양식

청소년 성의식조사 설문지(초등학생용)

☐ 잘 읽고 해당되는 곳에 V 표 하세요

1. 다음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의식 전반에 대한 질문입니다.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V 표** 해 주세요.

문	항	매 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나는 내가 좋고 사랑스럽다					
②	다른사람의 외모가 부러울때가 있다					
③	성에 대해 관심과 호기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럽다					
④	성에 대해 다른 사람과 이야기 나누는 것이 부끄럽다					
⑤	사춘기 시기의 몸과 마음의 변화에 대해 불편하고 두렵다					
⑥	인터넷등 사이버공간에서 차별과 폭력적인 말을 들어본 경험이 있다					
⑦	또래친구에게 불편함을 느껴도 표현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⑧	성별에 따라 하는 일은 다르다					

2. 성에 대한 정보나 지식은 주로 어디에서 얻나요?(복수응답가능)

- ① 부모 ② 형제·자매 ③ 친구나 선·후배
④ 인터넷(스마트폰, 지식인 등) 검색 ⑤ 교사(보건의교사 또는 교과교사) ⑥ 성교육 책
⑦ 외부 성교육 전문가 ⑧ 기타 ()

3. 요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입니까?

- ① 외모 ② 이성친구(연애) ③ 몸의 변화 ④ 성에 대한 호기심 ⑤ 부모와의 갈등
⑥ 친구와의 갈등 ⑦ 감정의 기복 ⑧ 공부와 진로 ⑨ 기타()

4. 성적영상물(글, 영상, 사진 등)을 처음으로 접했던 시기는 언제인가요?

- ① 초등학교 입학 전 ② 초등 1학년 ③ 초등 2학년 ④ 초등 3학년
⑤ 초등 4학년 ⑥ 초등 5학년 ⑦ 초등 6학년 ⑧ 접한 적 없다

5. 성적영상물(글, 영상, 사진 등)을 보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복수응답가능)

- ① 기분이 좋았다.
- ② 기분이 좋지 않았다.
- ③ 따라하고 싶은 느낌이 들었다.
- ④ 죄를 지은 느낌이었다.
- 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다.
- ⑥ 불안한 느낌이 들었다.
- ⑦ 더럽다고 생각 되었다.
- ⑧ 흥분되었다.
- ⑨ 자꾸 생각이 났다.
- ⑩ 민망하고 부끄러웠다.
- ⑪ 혐오감이 들었다.
- ⑫ 아무 느낌 없었다.
- ⑬ 또 보고 싶었다.
- ⑭ 기타()

뒷면계속 $\Rightarrow$

6. 성폭력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체크해 주세요.

- ① 나는 성폭력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두렵다. (그렇다 / 아니다)
- ② 나도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그렇다 / 아니다)
- ③ 나도 성폭력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그렇다 / 아니다)
- ④ 성폭력은 피해자가 조심하면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 / 아니다)
- ⑤ 친한 사이에서는 성폭력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다 / 아니다)

7. 누군가에게 아래와 같은 행동을 받아 본 적, 또는 해 본 적이 있으면 **모두 V표**해 주세요.

구 분	피해 경험 (받아본 적)	가해 경험 (해 본 적)
① 야한 말이나 성적 수치심이 드는 이야기		
② 성적으로 외모에 대한 놀림		
③ 옷 벗기기		
④ SNS를 통한 채팅에서 야한 문자나 사진 전송		
⑤ 불법촬영(몰·카)		
⑥ 성기노출		
⑦ 몸(성기, 가슴, 엉덩이 허벅지 등)만지는 것		
⑧ 강제적인 성관계(강간)		
⑨ 없다		
⑩ 기타()		

8. 만약 위와 같은 경험이 있다면 누구에게 말할 것입니까?

- ① 친구 ② 부모나 가족 ③ 선생님(학교, 학원) ④ 상담소
- ⑤ 경찰관 ⑥ 믿을 수 있는 어른(친·인척, 이웃 등)
- ⑦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다. (이유:) ⑧ 기타()

☐ 다음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V 표 해 주세요.

9. 현재 학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초등5학년 ② 초등6학년

10.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여자 ② 남자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 성의식조사 설문지(중고등용)

□ 잘 읽고 해당되는 곳에 V 표 하세요

1. 성에 대해 나의 생각(또는 느낌)은 ? (복수 체크)

- ① 호기심(궁금증)이 생긴다. ② 신기하다. ③ 아름답다. ④ 재미있다.
⑤ 부끄럽다. ⑥ 불편하고 거북하다. ⑦ 비밀스럽다. ⑧ 자연스럽다.
⑨ 소중하다. ⑩ 기타()

2. 성에 대한 정보나 지식은 주로 어디에서 얻습니까?(복수 체크)

- ① 부모 ② 형제, 자매 ③ 친구나 선·후배
④ 인터넷(스마트 폰, 지식인 등) 검색 ⑤ 교사(보건교사 또는 교과교사)
⑥ 성교육 도서 ⑦ 외부 성교육 강사 ⑧ 기타()

3. 성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경우 누구와 의논하나요?

- ① 부모 ② 형제자매 ③ 친구나 선배 ④ 학교교사
⑤ 성교육·성상담 전문가 ⑥ 인터넷 네티즌 ⑦ 의논하지 않는다.
⑧ 고민이 없다. ⑨ 기타()

4. 그동안 받았던 성교육은 도움이 되었나요?

- ① 매우 도움이 되었다. ②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⑥ 기타()

*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

5. 성교육은 누구/어디로부터 받고 싶습니까?

- ① 성교육 전문기관 ② 인터넷(스마트 폰, 지식인 등) 검색
③ 친구나 선·후배 ④ 교사(보건교사 또는 교과교사)
⑤ 성교육 도서 ⑥ 부모 형제자매
⑦ 기타()

6.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성교육의 주제는 무엇인가요?(3개 체크)

- ① 성평등(성인지감수성) ② 사춘기 이해
③ 연애와 피임 교제성폭력 ④ 성적자기결정권, 의사소통
⑤ 성인권(차별과 혐오_성정체성, 외모지상주의 등) ⑥ 경계존중(또래성폭력)
⑦ 성폭력, 성매매 이해와 대응
⑧ 성적표현물 및 디지털성범죄 이해와 대응

* 기타 _____

뒷면계속 ⇒

7. 성적영상물(글, 영상, 사진 등)을 보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복수응답가능)

- ① 기분이 좋았다. ② 기분이 좋지 않았다.
- ③ 따라하고 싶은 느낌이 들었다. ④ 죄를 지은 느낌이었다.
- 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다. ⑥ 불안한 느낌이 들었다.
- ⑦ 더럽다고 생각 되었다. ⑧ 흥분되었다.
- ⑨ 자꾸 생각이 났다. ⑩ 민망하고 부끄러웠다.
- ⑪ 혐오감이 들었다. ⑫ 아무 느낌 없었다.
- ⑬ 또 보고 싶었다. ⑭ 기타()

8. 성적표현물(글, 영상, 사진 등)을 처음으로 접했던 시기는 언제인가요?

- ① 초등학교 입학 전 ② 초등 1-2학년 ③ 초등 3-4학년 ④ 초등 5-6학년
⑤ 중 1학년 ⑥ 중 2학년 ⑦ 중 3학년 ⑧ 고 1학년
⑨ 고 2학년 ⑩ 접한 적 없다

9. 10대가 연애(다른 사람을 사귀는)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스킨십에 모두 V 표시 해 주세요.

- ① 절대로 안 된다 ② 손잡기 ③ 뽀뽀 ④ 포옹 ⑤ 키스
⑥ 성기나 가슴을 만짐 ⑦ 성관계 ⑧ 기타()

10. 연애 경험이 있나요?

- ① 있다.(10-1번으로) ② 연애 중이다.(10-1번으로)
③ 없다. ④ 기타()

10-1. 사귀는 사이(연애)에서 스킨십을 할 때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스킨십을 하였나요?

- ① 동의를 구했다. ②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10-2. 원하지 않는 스킨십을 강요받았을 때 나는 어떻게 했나요?

- ① 거부했다.
② 거부하기 어려워서 가만히 있었다.
③ 기타()

10-3. 강요받은 스킨십을 거부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상대가 무안해 할까봐 ② 사이가 멀어지거나 헤어지게 될까봐
③ 싸우기 싫어서 ④ 상대가 거절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⑤ 거절한 후 불이익이 있을까봐 ⑥ 기타()

뒷면계속 $\Rightarrow$

11. 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나요?

- ① 있다.(11-1번으로) ② 없다.(12번으로)

11-1. 성관계를 처음 한 시기는 언제인가요?

- ① 초등(1~3) ② 초등(4~6) ③ 중 1 ④ 중 2 ⑤ 중 3 ⑥ 고 1 ⑦ 고 2

11-2. 성관계 시 피임을 했나요?

- ① 항상 한다. ② 자주 한다. ③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
④ 거의 안 한다. ⑤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11-3. 피임을 한 적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① 설마 임신할 것 같지 않아서 ② 분위기를 깰까봐
③ 나를 성경험이 많은 사람으로 볼까봐 ④ 상대방이 원하지 않아서
⑤ 성적 쾌감이 덜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⑥ 피임방법을 몰라서
⑦ 피임도구를 구하기 어려워서 ⑧ 갑자기 열떨결에 성관계를 하게 돼서
⑨ 기타()

12. 성폭력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체크해 주세요.

- ① 성폭력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두렵다. (그렇다 / 아니다)
② 나도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그렇다 / 아니다)
③ 나도 성폭력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그렇다 / 아니다)
④ 성폭력은 피해자가 조심하면 예방할 수 있다. (그렇다 / 아니다)
⑤ 사귀는 사이에서는 성폭력이 일어날 수 없다. (그렇다 / 아니다)

13. 누군가에게 아래와 같은 행동을 받아 본 적, 또는 해 본 적이 있으면 **모두 V표**해 주세요.

문 항	피해 경험 (받아본 적)	가해 경험 (해 본 적)
① 섹드립, 패드립		
② 성적인 수치감을 주는 소문을 퍼트림		
③ sns를 통한 채팅에서 성적인 말이나 사진 전송		
④ 옷 벗기기		
⑤ 동의 없는 촬영과 업로드		
⑥ 버스나 지하철에서의 성추행		
⑦ 기타()		

뒷면계속 ⇒

14. 만약 위와 같은 경험이 있다면 누구에게 말할 것입니까?

- ① 친구 ② 부모나 가족 ③ 교사(학교, 학원 등) ④ 상담소
⑤ 경찰관 ⑥ 믿을 수 있는 어른(친·인척, 이웃 등)
⑦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다(이유:) ⑧ 기타()

☐ 다음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V 표 해 주세요.

15. 현재 학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중학생 ② 고등학생

16.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여자 ② 남자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 성교육 필요성 설문지(교사용)

본 설문지는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찾아가는 성교육 지원에 따른 선생님들의 고견을 듣기 위한 설문지입니다. 학교현장에서 평소에 생각하고 계신 선생님의 의견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V 표 해 주세요.

1.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2. 귀하가 근무하는 학교는 어디입니까?

-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기타()

□ 다음 질문에 선생님의 생각을 찾아 V표 해 주세요.

1. 아동·청소년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필요하지 않다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2. 성교육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필요하지 않다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3. 성교육전문기관이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4. 선생님의 학교에서는 성교육(아동·청소년)시 성교육전문강사를 초빙하십니까?

- ① 초빙한다. ② 초빙하지 않는다.

4-1. 전문강사를 초빙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 체크 가능)

- ① 예산 부족 ② 행정 절차 상의 어려움 ③ 전문 강사 섭외의 어려움
④ 기타 _____

4-2. 전문강사를 초빙한다면 그 형태는 어떻게 운영하시나요?

- ① 각 교실 ② 일부집합+방송 ③ 강당-체험부스식
④ 강당-강의식 ⑤ 방송강의 ⑥ 기타 _____

4-3. 전문강사를 초빙한 경우 도움이 되셨습니까?

- ① 도움이 되었다. ② 보통이다. ③ 도움이 되지 않았다.

뒷면계속 ⇒

① 성매매 ② 연애, 스킨십 및 교제 성폭력
③ 성관계로 인한 피해(임신, 피임,性病 등)
④ 왜곡된 성문화 습득, 가치관 ⑤ (또래)성폭력 및 디지털성범죄
⑥ 차별과 혐오(외모지상주의, 성적 대상화) ⑦ 기타 _____

① 성평등(성인지감수성) ② 사춘기 이해
③ 연애와 피임 교제성폭력 ④ 성적자기결정권, 의사소통
⑤ 성폭력, 성매매 이해와 대응 ⑥ 경계존중(또래성폭력)
⑦ 성인권(차별과 혐오_성정체성, 외모지상주의 등)
⑧ 성적표현물 및 디지털성범죄 이해와 대응 ⑨ 기타 _____

① 시간 부족
② 전문성 부족
③ 교구 및 자료 부족
④ 현실과 동떨어진 성교육
⑤ 이론중심 주입식 성교육
⑥ 평가 중심의 형식적인 운영
⑦ 기타 _____

① 성인지감수성 ② 성사안 중심
③ 학교 내(학생-학생, 학생-교사, 교사-교사 간)에서의 성인권
④ 차별과 혐오 ⑤ 성매매 실태와 대응
⑥ 기타 _____

2024년 아동·청소년 성교육 방향성 재고를 위한
지역네트워크 포럼

인 쇄	2024년 11월
발 행	2024년 11월
발행인	이정호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체육관로 76
연락처	T. 032-500-2250-4 F. 032-550-2256 www.icbp.go.kr/gender/
발행처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2024년
아동청소년성교육 방향성
재고를 위한 지역네트워크
포럼

부평구
청소년
성문화
센터
S
AY
sexuality about the youth